



임실군 종합사격장이 전북투어패스 카드 이용시설로 지정되는 등 전국적인 관광체험 명소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종합사격장 관광체험 명소 만든다

임실군, 클레이·공기총 사격 체험장 등 전북투어패스카드 이용시설 지정

임실군 종합사격장이 전북투어패스 카드 이용시설로 지정되는 등 전국적인 관광체험 명소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임실군은 청용면에 소재한 전북종합사격장에서 전북투어패스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기총사격 체험 등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전북투어패스를 이용하는 봄맞이 체험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노후시설 교체 등 시설개선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해 25m 사격장 전자표적 40사대 신규설치를 완료한 데 이어 올해 초 클레이사격장 방출기 등 장비 구

매설치 사업도 마무리 했다.

특히 봄맞이 체험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체험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방탄방 설비공사와 전기소방공사 등을 발빠르게 진행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에는 결선사격장을 증축하고, 건물 도색과 표적 앞 조형시설 설치 등 개보수 작업도 착착 추진해 나간다.

전북종합사격장은 연중에는 일반인들의 클레이 사격 및 공기총 사격 체험장과 전국 사격선수들의 전지훈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연평균 이용객만 2만여명에 달하고, 전국화생사격대회 등 전국 규모의 크고작은 대회가 무려 8개나 꾸준히 개

최되고 있다.

군은 민선6기에 들어서면서 종합사격장 시설개선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2015년 10m, 50m 전자표적을 교체한 데 이어 2016년에는 무기고와 탄약고 증축 등 3개의 개보수 작업을 마무리 했다.

군은 종합사격장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체험객을 적극 유치하고, 각종 전국대회를 비롯한 국제사격대회도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반인 사격체험, 전지훈련 등 사격장 이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홈페이지(<http://www.jsshoot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발효소스토클, 미디어 아트 체험공간으로

6월부터 효모~전통장 숙성까지 전 과정 체험

순창발효소스토클이 효모에서 전통장의 숙성까지 전 과정을 생생한 미디어 아트로 체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체험공간으로 되살아 난다.

군은 순창 전통장 실감콘텐츠 체험 테마존 구축사업 기획안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체험시설 설치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에 유일하게 전통장을 장기 숙성하기 위해 건립된 발효소스토클에 순창의 고유한 전통 자원을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해 체험 관광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추진한 차세대 실감콘텐츠 개발지

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원을 투자한다.

군은 올해 6월까지의 사업을 완료해 순창을 대표하는 대표관광자원으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이번에 확정된 기획안에 따르면 미디어 아트공간은 전통장이 만들어 지는 과정을 4단계로 나눠 관광객들이 각 과정을 화려한 영상과 함께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만든다.

첫 번째 효모만들기 체험존은 관광객이 효모 포자가 되어 효모를 생성하고 만드는 체험공간이다.

75인치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곰팡이의 생성에 대해 체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메주만들기 체험존이다. 체험자가 만든 효모를 향이리에 모아 넣는 체험이 진행된다. 체험자가 직접 영상미디어에서 곰팡이를 만지면서 향이리로 옮기고 걸으면서 균주를 활용한 게임도 가능한 특징이 있다.

세 번째는 장의 발효 체험존이다. 메주가 들어간 장이 발효되는 과정으로 장이 발효되는 과정을 다양한 색깔의 거품으로 표현한다.

마지막 장의 숙성 체험존은 장이 숙성되는 과정을 8개 정방향 디스플레이로 계절감 있게 표현했다.

군은 발효소스토클 미디어 아트 공간을 전라북도 미디어콘텐츠 사업과도 연계하고 토탈관광의 새로운 자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임실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각광'

건전한 여가생활 장소로...수영특강·아쿠아로빅 등 운영

임실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한 달 평균 이용객이 6천여명에 달해 지역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2013년 7,221㎡ 면적에 25m 레인 5개 규모로 개장한 수영장은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체온유지실 등의 최신 편의시설이 완비돼 있다.

또한 방학을 맞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특강'을 비롯해 어른신 관절염 예방을 위한 '아쿠아로빅'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3월부터 임실교육지원청과 시설이용 업무협의를 맺고 지역내

12개 초등학교의 생존수영 학습 장소로 활용되고 있어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 향상 및 수영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군은 수영인구 저변확대 등 양질의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지역민 여가 선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체육센터 운영에 노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운영 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불편 없는 수영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벌써 온탕소독기 설치

순창군이 벌써 온탕소독기 설치를 통한 카다리병 예방에 나선다.

군은 오는 13일부터 조생종병 재배가 많은 풍산면과 북흥면을 시작으로 읍면별로 벌써 온탕소독기를 1~3대씩 총 18대를 각 읍면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카다리병의 병충은 못자리에서부터 버의 키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며 한번 감염된 종자는 배아사이 생긴 이후에도 버알이 제대로 여물지 않아 버농사에 큰 피해를 주는 병으로, 철저한 종자소독만이 카다리병을 막을 수 있는데 온탕소독과 약제소독을 병행하면 98% 이상 방제효과가 있다.

순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카다리병을 줄이기 위해 2013년도부터 온탕소독을 지원해 오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춘향제 자원봉사 모집

춘향제추진위원회에서는 오는 5월에 개최되는 제87회 춘향제에 시민과 자원봉사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3월 10일까지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자원봉사신청을 받고 있다.

선발된 자원봉사는 춘향제 기간 동안 행사장 곳곳에서 각종 행사안내 및 남원 홍보와 미아보호, 음료봉사, 축제장 교통질서유지 및 통제 등을 통하여 편안하고 질서정연한 축제가 되도록 봉사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자원봉사의 분야별 실무교육 및 발대식은 4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춘향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제87회 춘향제를 질서정연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사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고 시민, 관광객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임실군은 8일 상성마을회관(임실읍 성가리)에서 상성마을주민, 향토자원개발연구소, 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특화지역(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주민설명회는 2018년도 사업 공모를 위한 추진사항과 '문화특화지역(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 주민의 견정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한국 치즈의 원조인 임실 성가리 치즈공장을 비롯하여 과거 임실의 읍치(邑治)로서 임실향교, 임실성당, 임실문화원, 천도교 임실교구, 백로서식지, 상성마을벽화 등 임실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지난해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했던 문화관광공간 재창

조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상성마을 일대에 임실치즈와 임실역사를 주제로 벽화사업을 완료했다.

올해에는 5월 준공을 목표로 치즈산업 한눈에 볼 수 있는 '임실치즈 50년사'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1966년 지정한 신부가 임실을 성가리에 세운 치즈공장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문화마을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발굴하고 대내외에 널리 알려 주민의 정주감 향상을 목표로 마을 단위를 대상으로 3년간 총 6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군은 2018년 선정목표로 공모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사업평가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추진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새봄맞이 대청결 운동

고창군(군수 박우정) 부안면이 8일 주민들과 함께 새봄맞이 대청결운동에 나섰다.

이날 부안면사무소 직원들과 주민들은 아름답고 청정한 지역 만들기에 동참해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화단가꾸기 및 구석진 곳 방치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날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재활용품 선별 방법 등 환경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김영환 부안면장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내 마을 내 지역부터 살피며 청정환경을 조성하도록 월 1회 이상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주요사업 설명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박재근)는 남원시의회를 방문해 이석보 남원시의회 의장 및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해 주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남원지사장은 공사 주요사업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남원시 대항사업에 대한 추가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공사에서 신규 개발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 지자체, 농업인단체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신규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모든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질의로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이석보의장은 남원시 농업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공